



기독교 세계관 :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김종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¹⁾ 선하게²⁾ 창조하셨습니다.³⁾ 특히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⁴⁾ 지으시고는⁵⁾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도록⁶⁾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⁷⁾ 불순종하므로 타락하였고, 그 타락의 결과는 피조된 곳곳에⁸⁾ 미치게 되었습니다.⁹⁾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타락한 피조 세계를¹⁰⁾ 회복¹¹⁾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¹²⁾, 이러한 구속의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관계의 측면	존재의 측면	역할의 측면
창조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형상	통치(개발)/보존(관리)
타락	분리된 관계	어그러진 형상	착취와 숭배/통치권 상실
구속	회복된 관계	회복된 형상	회복된 관리/통치권의 회복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적인 함의〉

신학		어디에 사는가?	선하게 창조된 세계
인식론			
인간학	창조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존재 칭지기
윤리학	타락	무엇이 문제인가?	죄 타락의 총체성
윤리학	구속	무엇이 해결책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문제 해결 회복의 총체성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세계관의 비교〉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기독교 세계관
어디에 사는가?	소박실재론	구성주의	창조된 세계 비판적 실재론
누구인가?	자율적 인간	초자율적 인간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무엇이 악인가?	(보편성을 가로막는) 다양성	통일성 (보편성)	죄
무엇이 선인가?	통일성 (보편성)	다양성 (불가공약성)	구원 통일성과 다양성

1) 사도 신경은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요1: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과 골1:15-16“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물론 천사, 국가, 결혼제도 등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1)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는 점이다. 2)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므로 만물을 비신화시킬 수 있다. 즉 하나님이외에는 신이 없고, 모두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이다. 쉘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깥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범신론과 다른 이 세계관이 근대 과학을 탄생시켰다고 하고 있다. 우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건, 아무리 탁월한 이데올로기건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상대화 시켜야 한다. 3)인간도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피조물의 연대성을 생각해야 하고,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 4)우리도 자연도 동일한 분이 창조하셨으므로 인식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물이 존재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인식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5)자연을 볼 때 단순히 삭막하고 얼굴 없는 물리적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격을 느낄 수 있다. 유신론자들이 우주가 인격적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인과적인 설명이 적합하다고 느끼기 보다, 인격적 설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6)창조물을 보고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창조자의 특성이 작품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물건에다 이름을 새겨 놓은 것처럼 우리는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알 수 있다(롬1:20 시8:1). 7)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를 모방해야 하듯이, 우리의 창조활동은 근본적으로 독창이라고 부를 수 없고 모방이라고 봐야 한다. C. S 루이스는 현대 비평의 중심되는 단어들인 일탈성, 즉흥성, 무한한 자유라고 하고, 어느 의미에서 독창성은 하나님만의 특권이므로(해 아래 새것이 없다), 우리의 창조성은 그분의 창조성을 따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창작할 때 우리가 물어야할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 새롭게 유일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들어 온 이원론은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해야 한다.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고, 종교적인 영역 뿐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차 마시고 공부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해야 한다. 라브리에서 잘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죄가 아니면 모두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 역시 육체의 몸으로 오셨고 지금도 육체를 입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역시 육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가서서 만찬을 즐기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고기를 구워 잡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세상’이나 ‘육체’를 악한 것으로 그리는 듯한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육체flesh 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인 바사르와 헬라인 사르스를 바울은 문맥에 따라 부정적인 도덕적 함의가 없는 단순한 육체 내지 인간 혹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타락한 피조성을 지닌 인간을 뜻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을 대조시킨다. 따라서 롬4:1의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나 롬1:3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현재의 삶을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표현인 갈2:20, 고후10:3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인간의 몸이라는 의미이다. 시편56:4의 육체가 어찌하리이까?라는 말 역시 하나님과 관련해 단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갈5:13-24, 골2:11-13, 롬7:5-8 같은 구절들에 나오는 '육체'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NIV는 같은 단어(육체, flesh, 사투스, 바사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후자를 육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죄악된 본성sinful nature'이라고 번역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고후10:3의 경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 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를 NIV는 모두 World로 번역하고 있는데, 전자는 인간, 인간의 연약함으로 후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의 논증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죄를 의미하는 '세상'이 있고, 도덕적인 함축이 들어 있지 않은 창조 세계로서의 '세상'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일1:15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와 요3:16의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의 세상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 3)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 후에 마치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듯이 내버려두셨다고 하는 이신론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은 창조 후 지금까지 만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 만물 역시 창조 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33:20-21, 25-26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 아침마다 해가 뜨는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설명의 다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지구/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거, 현재, 미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창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삼위일체의 특징이 피조된 만물에 드러나고 있다고 해야 한다. 만물은 제 자기 개성이 있지만 그 안에 질서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성도 사이의 일치(통일성)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에서도 볼 수 있다.
- 4) 하나님의 형상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인격성/인간성을 말한다 할 수 있다. 동물과 구별되는 도덕성, 지성, 감정, 창조성을 의미하며(골3:10, 엡4:24), 자연에 대한 권위, 관계성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악할 때, 가장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즉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옆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무한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불연속이 있으나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연속성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고도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만물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없이 인간의 존엄을 정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5) 인간의 피조물성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 중 하나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었다. 모더니즘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누구를 섬겨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의존적인 성격, 유한성과 피조물성은 타락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함과 부유하심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론과 관련해서 피조 세계인 인식 객체와 인식 주체인 인간이 동일한 창조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 합리적이신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 역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합리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존재하는 방식이 부합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성과 타락성을 염두에 둘 때 소박 실재론처럼 인식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사진과 같은 일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지도처럼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고후4: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 6) 다스리라는 의미에는 창세기1:28의 개발과 2:15의 돌봄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개발하고 돌보는 관리자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발과 돌봄의 대상인 자연은 단순히 객체로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앞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인 자연을 묘사하는 렘33:20-21, 25-26말씀이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는 시19을 보면 자연도 인간의 매개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무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피조물과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생태문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 7) 인간의 자율성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8) 먼저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자신 내면 역시 분리되었다(관계의 측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어그러졌다(존재의 측면).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 자연은 인간의 지배에 불복종하게 되었고, 인간은 청지기의 자세로 돌보고 개발하기보다는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 혹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역할의 측면).

- 9) 전적 타락은 타락의 범위와 관련해서 타락으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타락의 정도와 관련해서 바닥까지 남김없이 타락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으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아퀴나스의 입장과는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창조성, 도덕성 등 하나님 형상 중에서 손상이 안된 부분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손상의 정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9:6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며, 마7장9-11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악한 자라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은 한다고 말씀하신다.
- 10) 창조된 범위가 총체적이고 타락의 범위도 총체적이듯이 구속의 범위 역시 총체적이다. 롬8:19-23의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나 행3:21의 “만유의 회복” 엡1:10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보면 구속의 범위가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1) 회복은 구속의 핵심이다.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속(redemption), 화해(reconciliation), 새롭게 됨(renewal), 거듭남(rebirth), 중생(regeneration)은 모두 앞에 접두사re로 시작하는데, 모두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락 이전의 창조로의 회복이 구속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역시 타락하기 전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통치권과 관리자의 자세 회복이어야 한다. 갈3:17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 12) 구속은 역사적 연속성이 있다. 타락 직후에 계획하셨고(창3:15)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루어 가신 구속 사역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정점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구속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속의 과거적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일정한 관계(자녀, 연합, 내주, 형제)에 들어간다. 구속의 현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삼위와의 교제가 깊어 질 수록 죄의 결과로부터 점진적인 해방을 얻게 된다. 또한 우리의 안에 타락으로 인해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된다. 미래적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과 자연에 그리워져있던 죄의 모든 결과가 완전히 거두어져 우리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속은 성경에서 미래성과 현재성이 혼합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은 이 점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 될 것이다.